



광주서도 DJ 추모

18일 오전 광주 동구 YMCA 무진관에서 열린 고(故) 김대중 대통령 4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많은 추모객들이 김 전 대통령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서울서도 DJ 추모

18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4주기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이 추모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원·판 증인선서 거부... 청문회 '한계'

〈원세훈〉 〈김용관〉

‘국정원 댓글’ 진실규명 국정조사 뚜렷한 성과 없어

오늘 국정원 직원·경찰 관계자 등 출석 2차 청문회

지난해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가 진실규명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증인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관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청문회에 출석은 했지만, 청문회 사상 처음으로 증인선서 거부를 하고 주요 질문 등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김 빠진’ 국정조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특별위는 지난 16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관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나란히 증인으로 출석시켜 첫 청문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이 인터넷상에서 댓글 게시를 통해 선거개입을 했다는 의혹과,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의 은폐·축소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국기문란’이라고 몰아붙였으나 두 핵심 증인은 이를 시종일관 전면 부인했다.

원 전 원장은 북한이 2009년부터 사이버전을 강화함에 따라 국정원도 대북심리전단을 편성했고, 그 활동의 일환으로 댓글 작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대화록 내용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13일 당시 권영세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의 댓글 사건 중간 수사결과가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요지로 발표돼 은폐·축소수사 논란을 부른 데 대해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면서 “당시 직원들이 허위로 분석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고 지금도 직원들을 신뢰한다”고 답변했다.

김 전 청장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일 오후 당시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한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다면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어떤 영향을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조사 특위는 19일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경찰 관계자 등 증인 27명을 대상으로 2차 청문회를 진행한 뒤, 이날 청문회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및 ‘검금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와 김씨의 직속상관 이었던 최모씨, 이들의 지휘 선상에 있었던 이종범 전 국정원 3차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 등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또 댓글 사건 은폐·축소 의혹과 관련해 권영희 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과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인권유린 및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국정원 전직 직원인 정기성·김상욱씨 등이 출석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정원 국조 금주 종료...대치 정국 분수령

8월 결산국회 놓고 “민생외면” “국조 물타기” 공방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이번 주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여야는 휴일인 18일에도 국정원 국조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 국면을 이어갔지만 민주당 장외투쟁의 동력을 제공해 온 국

정원 국조가 오는 23일 종료됨에 따라 변화된 정치 환경이 여야 대화의 새 모멘텀을 제공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결산국회의 정상적 진행을 명분으로 18일째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을 비판하면

서 국회 복귀를 강하게 압박했지만, 민주당은 결산국회 소집 요구가 국정조사의 힘을 빼려는 의도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2012년 대선 패배를 살피기보다 반세 촛불을 켜 때가 아니라 결산국회를 위해 밤새워 일할 때”라며 “제1야당으로서 민생국회와 결산국회 소집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 관심이 국정조사에 쏠린 상황에서 단독으로 결산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은 민주당 장외투쟁의 동력을 빼고 국정조사를 물타기 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대통령 서거 4주기를 맞아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조우한 것을 계기로 경쟁력 정국의 실태가 풀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대중 前 대통령 4주기 추모식 엄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4주기 추모식이 18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엄수됐다.

이날 추모식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전병현 원내대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정의당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등 여야 각 정당 지도부가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이 자리에는 이희호 여사를 비롯한 유가족과 종교계 대표, 국회의원, 재

야인사 등이 참석했으며,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과 민주당 권노갑 상임고문·문화상 전 비상대책위원장·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 옛 동료 관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으며, 문재인 의원도 모처럼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강은대 광주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청와대 박준우 정무수석도 함께 했다.

광주·전남 곳곳에서도 추모행사가 열렸다. 6·15 공동선언실천 광주·전남본부와 민주당 광주시당,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기념공원위원회는 이날 오전 광주YMCA에서 광주지역 기관장 및 시민사회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모식’을 개최했다.

김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신안군 하의도에서도 이날 오전 추모식이 열렸으며, 앞서 지난 17일에는 목포에 조성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추모식이 열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DJ 서거 4주기...뽕뽕이 흩어진 ‘동교동 사람들’

권노갑·김옥두 ‘건재’ 한화갑·한광옥 ‘이탈’ 박지원 의원·박준영 지사 왕성한 현역 활동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4주기를 맞은 18일, 그와 고라의 세월을 함께 했던 ‘DJ의 사람들’이 이제 뽕뽕이 흩어져 서로 각자의 길을 걷고 있다. 우선 가신그림인 동교동계 일부 인사들은 지난 대선에서 서로 다른 길을 택하며 ‘결별’했다.

동교동계 좌장격인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은 당 상임고문단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는가 하면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아 83세의 나이에도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권 고문을 비롯, 김옥두·남궁진·윤철상·이훈평·김태전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들은 매주 화요일 이희호 여사와 함께 동작동 국립현충원의 DJ 묘역을 찾아 참배하는 일정을 4년째

이어가고 있다.

반면,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영입된 뒤 현재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때 ‘리틀 DJ’로 불리던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와 김경재·이운수·안동선 전 의원 등 일부 범동교동계 인사들도 작년 대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을 지지하며 새누리당 진영으로 넘어갔다.

청와대 공보수석 겸 대변인을 지낸 박선숙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진정’인 민주당을 탈당, 대선 예비후보로 나선 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캠프의 핵심으로 활약했다.

여의도 내에는 아직 ‘DJ의 사람들’

상당수가 건재하다.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박지원 의원은 18대 국회 때 재입성 후 두 차례나 야당 원내사령탑을 역임했으며, ‘동교동계 막내’격인 설 현 의원을 비롯, 이석현·심재관·배기운 의원 등도 비서 등을 지낸 ‘DJ 맨’이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청와대 공보수석을 지낸 박준영 전남지사가 3선 도지사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의 ‘투톱’도 DJ와 인연이 각별하다. 김한길 대표는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때 영입돼 본격적으로 정치인의 길에 들어섰고, 당료 출신인 전병헌 원내대표는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지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3년 10월 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3.3㎡ 당 임대가 200만원

분양가 25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P×200만원 = 임대가 3억7400만원
분양가 4억6750만원

<p>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p> <p>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p> <p>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p> <p>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p>	<p>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p> <p>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p> <p>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p> <p>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p>
--	---

Good Morning Medical Town
굿모닝메디컬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시네마 (CGV) 계약완료! 골프장 계약완료!

볼링장 계약완료! 수영장 계약완료!

파격적인 임대가 & 분양가

<p>지하2층~지하1층 수영장(사우나,헬스) 계약완료</p> <p>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p> <p>지상1층 농협지점,하나로마트 845P</p> <p>지상1층 지상1층 현대폰매장 22P</p> <p>지상1층 미용실 23P</p> <p>지상1층 약국 69P</p> <p>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P</p> <p>지상1층 롯데리아(맥도날드), 드롭탑 540P</p>	<p>지상2층 PC방 203P</p> <p>지상2층 레스토랑 166P</p> <p>지상2층 볼링장 계약완료</p> <p>지상2층 한정식 387P</p> <p>지상 2층~3층 골프장 분양완료</p> <p>지상3층 일식 387P</p> <p>지상 3층~4층 영화관(CGV)계약완료</p> <p>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P</p>
---	---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렌터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